

"엄마·아빠 이혼 걱정" 19세 딸 고민...서장훈 "중재로 해결 안 돼"

등록 2026.06.01 12:33:00



[서울=뉴시스] 1일 오후 8시 방송되는 KBS Joy 예능물 '무엇이든 물어보살' 367회에는 부모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대학생 사연자가 출연한다. (사진=KBS Joy) 2026.06.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부모의 냉랭한 관계로 힘들어하는 19세 대학생의 사연이 공개된다.

1일 오후 8시 방송되는 KBS Joy 예능물 '무엇이든 물어보살' 367회에는 부모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대학생 사연자가 출연한다.

사연자는 "엄마, 아빠가 남보다도 못한 사이처럼 지낸다"며 "외동딸인 제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는다.

그는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기념일을 챙기지 않을 정도로 냉랭한 사이였다고 밝혔다. "가족끼리만 외식한 기억도 거의 없다"고도 했다.

사연자는 부모의 관계가 멀어진 이유 중 하나로 아버지의 절약 습관을 언급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아버지는 음식이나 물

건을 버리는 것을 유독 아까워했다고 한다. 식당에서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물론, 뷔페에서 디저트를 따로 챙겨오거나 다 큰 테이블에 남겨진 치킨까지 가져와 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이를 들은 이수근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절약 습관에 학을 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엄마는 아빠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며 "가끔 아빠가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대답조차 안 하실 때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작년 부부 싸움 끝에 부모님이 '1년만 더 버티자'고 말하는 걸 듣고 이혼하실까 봐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장훈은 "20년 넘게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단순히 중재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재산 분할 문제 때문에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으면 결국 자녀가 가장 힘들다"며 "딸 앞에서만큼은 서로 냉랭한 모습을 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